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1. 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UN, “이스라엘 - 하마스 양측 모두 전쟁범죄” 비판
 - 11.9 언론은 「볼커 투르크」 UN 인권최고대표가 하마스의 잔학행위는 극악무도한 전쟁범죄라고 비판했으며,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과 불법적 강제 대피령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고 보도

미주

- 美 정부, 中 동영상 플랫폼 ‘틱톡’ 사용금지 주장
 - 11.8 외신은 「조시 홀리」 美 연방 상원의원*이 “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‘틱톡’에 反유대주의 콘텐츠가 팽배하고 있어 미국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”라고 주장하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했다고 보도
 - * “젊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공감하는 이유가 틱톡 때문”이라고 강조
- 구글, 테러 콘텐츠 대응을 위한 도구 개발
 - 11.13 언론은 구글이 온라인 내에서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생성되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‘Altitude’라는 무료 도구를 개발하였다고 보도

아·태평양

- ISIS, 카불 버스 폭탄테러 배후 자처
 - 11.8 외신은 ISIS가 자체 선전매체를 통해 아프간 수도에서 발생(11.6)한 시아파 탑승 버스 폭탄테러(사망 7·부상 20)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 - ※ ISIS는 지난 10월말 同지역 스포츠클럽 폭발(사망 7·부상 20)의 배후도 자처

○ 태국,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법안 추진

- 11.14 언론은 「아누틴 찬위라꾼」 태국 부총리가 연이은 총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※ 태국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 총기를 가져오지 못하게 윤리교육 강화를 지시

중 동

○ 이슬람권 지도자들,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 성토

- 11.11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이슬람협력기구(OIC)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성토하고 휴전을 촉구했으며,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軍 테러단체 지정 등 강력 제재 및 팔레스타인 무기 지원을 주장

※ 이란 「라이시」 대통령은 이 외에도 △ 對이스라엘 석유 판매중단 △ 가자지구 공격에 연루된 이스라엘·미국인 처벌 등을 주장

○ 이란, 하마스에게 가상화폐 등을 이용 거액의 자금 지원

- 11.13 언론은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하왈라* 및 가상화폐를 통해 4,100만달러(약 540억원)이상되는 거액의 금액을 지원 하였고, 同 자금은 테러단체 하마스 조직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보도

* 중동지역 이슬람 문화권 內 전통적 금융 시스템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훈디 점포에서 입출금이 가능

아프리카

○ 부르키나파소 무장세력, 마을 주민 70명 살해

- 11.13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5일 부르키나파소 북동부 마을 자온고에서 정체불명의 무장세력이 노인·어린이 등 마을주민 최소 70명을 살해했다고 발표

※ 유럽연합(EU)은 학살 책임자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부르키나파소 군정에 촉구

쿠르드 노동자당(PKK), 튀르키예 이스탄불 폭탄테러

- '22.11.13 터키 이스탄불시의 최대번화가인 베이올루 지구의 이스티클랄 거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
 - 튀르키예 당국은 길가에 폭탄 가방을 둔 쿠르드족 여성용의자를 체포한 후, 테러 배후에 '쿠르드 노동자당이 있다'고 발표
 - 또한, 美 애도 메세지에 대해서는 '미국이 同 폭발사건의 배후조직을 지원하고 있다'며 공식적으로 美 정부의 조의를 거절
- 이후, 튀르키예는 同 테러 보복으로 시리아, 이라크 북부 등에 있는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세력 관련 목표물 471곳을 공습, 245명을 사살
 - 이에 美 국방부는 '해당 공습으로 인해 ISIS 퇴치를 위해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미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'며 반발 성명을 발표

< 쿠르드족 분리운동 >

- (쿠르드족) '중동의 집시'라 불리며 국가 없이 중동 산악지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나, 고유 문화·언어·사회구조를 유지한 3,500만명 규모의 단일 민족
 - ※ 주요 거주지 : 튀르키예(1,500만명), 이란(1,000만명), 이라크(500만명), 시리아(200만명) 등
- (배경)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세브르 조약(1920년) 체결, 3년 뒤 튀르키예의 반발로 조약은 파기되고, 임의적인 영토설정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져 흡수
- (최근동향) 튀르키예의 쿠르드노동자당(PKK), 시리아의 인민수비대(YPG), 이라크의 페슈메르가(Peshmerga) 등의 분리운동 무장단체가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, 이라크·시리아 지역은 이라크 전쟁·ISIS 격퇴전 등 최근 지역내 혼란을 틈타 자치권을 확보하였으나, 튀르키예에서는 PKK*를 중심으로 분리주의 운동 지속中

* 테러단체 지정현황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EU·호주('05.12)